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5호 [루게 제23462호] 주제100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기념할 것이다

네 팔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 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여 네팔조 선진선례회, 네팔조제연구소, 조선통일지지 네팔위원회가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인류사적대경사로 성대히 기념할 때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 기념 국

제준비위원회 책임임원회의 결정을 깊은 감동속에 접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은 세계사적대경사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주석을 칭송하는 진보적인인류에게 있어서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 네팔조선선진선례회와 네팔조제연구소, 조선통일지지 네팔위원회는 내팔의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성

대히 기념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비열한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며 사회주의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제20차 국제공산주의자들의 토론회

별 지 끄에서 진행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제20차 국제공산주의자들의 토론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벨지끄의 브뤼셀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쿠바, 웨남,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단마르크, 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브라질 등 40여개 나라의 50여개 공산당, 로동당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현 국제정세하에서 공산당, 로동당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면적문제들이 토의되고 각 당들의 경험에 교환되었다. 토론회를 이끈 국제공산주의자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토로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는 자기 당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신 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하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계기

들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위업을 지지하는 연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것이다. 브라질공산당 대표는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 많은것을 체득하였다고 하면서 김정일동지들 모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당들에 있어서 희망의 등대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미제의 끊임없는 압박속에서도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전진하고 있다. 선군정치적 아니었다면 조선은 이미전에 이르거나 아프리카식 난처한 퇴각을 겪었을 것이다. 모든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워야 한다. 토론회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적인 전쟁도발책들을 단호히 규탄하고 지지하였다.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야말로 긴장격화, 전쟁도발의 장본인이라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결의는 미국이 남조선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벌인대 대하여 폭로탄핵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자주, 평화통일 그리고 화해와 협력, 교류에 대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한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것을 촉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한다. 미제의 간섭과 위협이 없을 때까지만 조선의 자주통일이 실현될수 있다. 이것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조선전쟁을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며 이에 굳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모든 역량을 농촌지원전투에 총집중, 총동원하자

농업전선에서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쌀은 곧 사회주의다. 쌀이 많아야 선군의 위력을 전백배로 강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열렬한 투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에에서도 알곡을 비롯한 농산원료가 많아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쌀자급국역이고 알곡증산자이 인민생활대교조의 승리이다. 지금 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고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봉쇄책동이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어디 가서 식량을 가져올데가 없다. 제당에서 제집으로 농사를 잘 지어 자급자족하는 길에 제일이 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여 인민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오늘을 총진군을 활력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농업전선에서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인민생활대교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올해의 일기조건은 번덕스럽다. 평균기온이 전반적으로 낮아 농업전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러나 당의 호소따라 전국이 정초부터 농업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고 농업근로자들이 이악하게 노력해온 결과 올해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농업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당면한 영농전

투에서부터 혁신을 이룩해야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촌지원전투를 본때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농촌지원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인민생활 문제해결의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알곡생산목표를 뚜렷이 제시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뚜렷한 방침이다.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뜻깊은 2012년을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자랑한 승리의 해로 빛내리려는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애국의 열정을 알곡증산을 위한 올해의 농촌지원사업에서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한 알의 낱알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뛰고 뛰는 사람, 농촌에 애착과 애를 바치는 사람, 농촌에서 더 나은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우리는 올해의 농촌지원사업을 통하여 당이 베푼 울림된 감동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위력, 당의 부름이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경기를 펼쳐나서는 우리 인민이 하는것은 인민생활대교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하는 사업은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해당 성, 중앙기관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침에서 어김없이 보장하는 엄격한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예외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력과 연유, 비료와 농약, 트랙터도 부족품을 비롯한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농촌에 노력을 과전할 때 해당 농장에서 요구되는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마련해가자고 농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비료이자 곧 쌀이다. 전력공업,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남풍과 홍남에 서 비료생산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전기와 석탄을 팽팡 대주며 비료생산기지들에서는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야 한다. 농촌에 전기를 책임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전기가 있어야 양수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고 모내기일을 비롯한 영농작업을 제때에 와타다 끝낼수 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생산전 전기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전제와 방법들을 도입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들에서는 농촌지원전투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바쁜 농사철에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도 더 많은 로력이 농촌지원사업에 동원될수 있도록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로력을 농촌지원에 돌려야 한다. 모든 지원자들은 협동농장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도와주어 그들이 농업생산에서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교조의 불빛에 맞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발휘하여 농장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들이 올해의 대교조전군에 영예로운 승리가 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한다. 모두다 농촌지원전투에 부른 당의 소리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올해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대교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자

온 나라 협동벌에 울리는 총공격의 나팔소리

전국의 예술선전대, 시, 군기동에술선동대 모내기전투경제선동 활발

긴장한 모내기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농장, 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전투를 시작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들과 각 시, 군기동에술선동대들이 일제히 모내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입니다.》 모내기전투에서 경제선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농장들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있으며, 그 리하여 지난 11일로부터 중앙

과 지방의 모든 예술선전대들과 각 시, 군기동에술선동대들이 전국의 모내기전투장들에 나가 경제선동의 첫 북소리를 높이 울렸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내당중앙예술선전대, 농군중앙예술선전대 등 중앙의 모든 예술선전대들이 들끓는 협동벌에 달려나갔다. 배낭과 악기를 메고 포진들에 달려나간 예술선전대원들은 비가 오든 불리한 날씨조건에도 하루에 여러 단위를 순회하면서 경제선동활동을 즐기게 벌리고있다.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백악군과 삼지연군, 보천군과 대동군, 동강군에서 전투적인 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중앙 《조선청년행진곡》과 기타행진곡 《타오르라 우등불이》를

비롯한 다채롭고 호소성이 강한 총곡들은 포진마다에 혁명적기상과 애국의 열의가 차넘치게 하였다. 예술선전대원들은 간자과종에 떨쳐나선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격동적인 선동사업을 벌려 전투장들을 끊게 하였다. 전투현장들과 리문화회관에서 격렬한 공연활동을 벌리면서 하루 4~5회의 경제선동을 맹렬히 전개하고있는 예술선전대의 활동은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대동군안의 여러 협동농장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린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는 중산군에 이어 현재 평원군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며 경제선동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강서구역 현안협동농장을 비롯하여 20여개 단위들을 순

회한 농군협동농장예술선전대원들은 현재 온천군안의 여러 농장들에서 경제선동활동을 벌리고있다. 피바다극단과 평안인형극단 선원들로 무어진 경제선동선대는 봉천군과 배천군, 연안군 등 황해남도의 여러 협동농장에서 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는 모내기전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양수동력보장을 위하여 편만단위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가고 있다. 도예술선전대들과 각 시, 군기동에술선동대들도 모내기전투장들에 달려나갔다. 량강도에술선전대는 대동군 서두, 홍안농장 등에서, 남포시에술선전대는 시안의 향구역 갈천리, 도지리, 어호리 등에서 경제선동활동을 벌리고있다.

모내기전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수록 모든 예술선전대들과 시, 군기동에술선동대들의 경제선동활동은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으며 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영화

전투장을 들끓게 하는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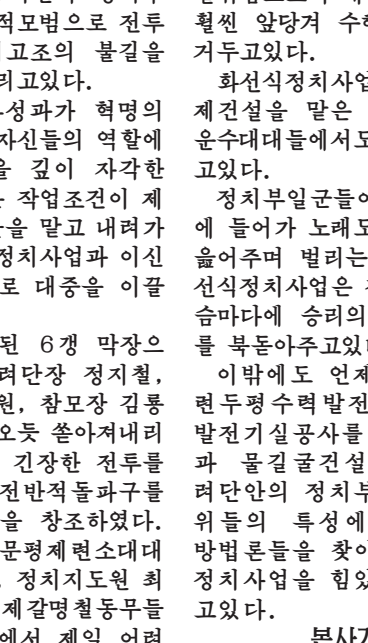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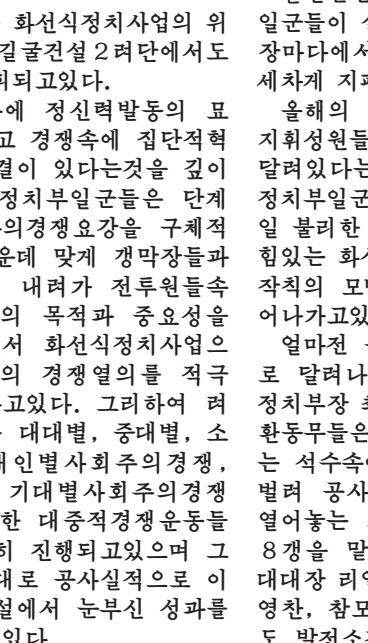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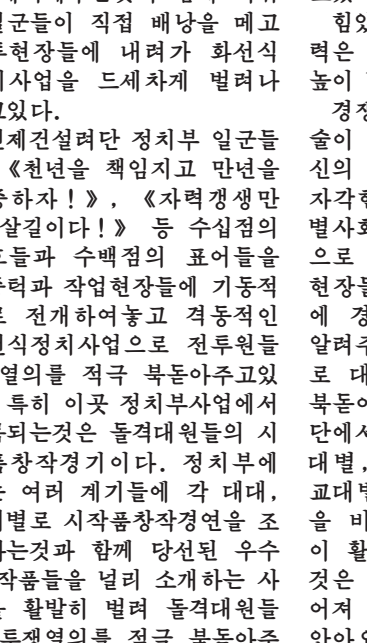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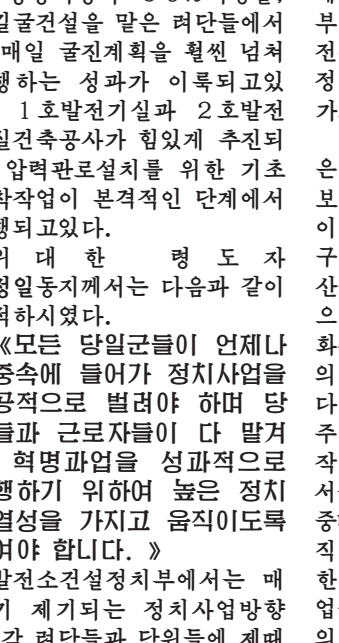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에 제시해주는것과 함께 지휘부일군들이 직접 배낭을 메고 전투현장들에 내려가 화선식 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언제건설될단 정치부 일군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등 수직집의 구호들과 수백점의 포여들을 산중터와 작업현장들에 기동적으로 전개하여농고 격동적인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전투원들의 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특히 이곳 정치부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돌격대원들의 시작용창작품이다. 정치부에서는 여러 계기들에 각 대대, 중대별로 시작용창작경연을 조직하는것과 함께 당선된 우수 작품들을 널리 소개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 돌격대원들의 투쟁열의를 적극 북돋아주

고있다.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은 물길굴건설 2리단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경쟁속에 정신력발동의 모음이 있고 경쟁속에 집단적열성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정치부일군들은 단계적 화선식정치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세운대 맞게 격박장과 현상들에 내려가 전투현장속에 경쟁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경쟁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그리하여 려단에서는 대대별, 중대별, 소대별, 개인별사회주의경쟁, 교대별, 기대별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대중적경쟁운동을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공사실적으로 이어져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안아오고있다.

물길굴건설 1리단의 정치부 일군들이 실천적모범으로 전투장마다에서 대교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올해의 전투성과가 혁명의 지원성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정치부일군들은 작업조건이 제 일 불리한 것들을 맡고 내려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과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얼마전 불락된 6경 막장으로 달려나간 2리단장 정치철, 정치부장 최현원, 참모장 김동환 등들은 비오듯 쏟아져내리는 석수속에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 공사의 전반적돌과를 열어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8경을 맡은 문경평소대대장 리인규, 정치지도원 최영찬, 참모장 제갈명철 등들은 화선식정치사업에서 위력 여러

발휘함으로써 매달 굴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화선식정치사업의 위력은 언제 건설을 맡은 중기제대와 운수대대에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정치부일군들이 운전사들속에 들어가 노래도 부르기도 해주며 버리는 격동적인 화선식정치사업은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이밖에도 언제건설을 맡은 련두평수력발전건설사업소,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단위들과 물길굴건설을 맡은 각 려단안의 정치부일군들은 단위의 특성에 맞는 좋은 방법론들을 찾아내고 화선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질 좋은 편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황해북도 당 조직들에서 모내기전투로 세차게 들끓고있는 황해북도의 농촌들에서 농군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혁신으로 고무추동하는 도당위원회와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여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농업부문 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교조 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시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 일군은 사리원시 미곡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



에 위대한 장군님의 헌치말씀 내용을 뜨겁게 새겨주고 품은 한 미곡벌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리고자 하면서 모내기를 다그쳐 끝내도록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백두산위업들의 불멸의 령도가 자유이 새겨져있는 농장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해당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알곡증산성과로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려는 농장들을 엄정하게 고 모내기를 적기에 와타다 끝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목산군 평안협동농장과 물리협동농장에 나간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고 현대적인 농기기로 마음껏 농사짓게 된데 대한 이야기로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며 그들이 모내기속도와 질을 부쩍 높여나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모내기과정에 계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보장하고 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를



만들어 리용하고있는 농장들의 경험과 다른 도들에서 창조된 좋은 농사경험을 제때에 받아들여 도안의 농촌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의 부족공생산과 그에 필요한 자체보장사업을 앞세워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장들에 필요한 부족물들을 제때에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따르며주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사무원, 로동자들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명명한 모내기전투에 총동원되도록 조직정치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단위 당조직들에서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농촌지원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모내기전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모내기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포진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기기자 김천일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열두삼천리벌에 비약의 기상 내려친다

25%의 예비를 어디서 찾아냈는가

모내기전투를 힘있게 내밀고 있는 속천군의 농장들에 가면 지난해보다 25% 더 높은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혁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예비를 어디서 찾아냈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꾼들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하는것을 자기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것은 올해농사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군의 일꾼들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때 여러 농장일꾼들속에서는 모내기시작날자를 놓고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도 하였다. 불철질조건이 폐년에 없이 불리했으므로 하여 모가 예상보다 크지 못하였던것이 다. 그렇다고 적기를 보장한다 고 하면서 어떤 모를 낼수도 없는 일이었다. 제 일수가 보장된 모를 내자면 모내기시작을 계획한 날보다 5일정도 미루어야 하는데 그러면 적기를 놓칠수 있었다. 적기를 보장하자면 하루 모내기실적을 계획보다 25% 더 올려야만 하였다. 그 방도는 무엇인가.

일꾼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 방도를 찾기로 하였다. 군 농업경영위원회 책임일꾼은 김홍농장의 모내기준비정형을 따져보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를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속천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제 10작업반을 비롯한 작업반들에서 새로 정한 모내기일정 계획이었다.

이 작업반들에서는 매일 계획보다 25%의 면적에 모내기를 할수 있게 일정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중에서 모내기를 앞둔 다투동안에 수행해야 할 일정계획은 혁신적이었다. 수령은 모내기인 경우도 그러했다. 농장에는 수령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 수령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작업반들에서는 불리한 작업조건때문에 품을 더 많이 고용을 받게 되었다.

이 고용에 기초하여 농장에서는 올해에 령량을 집중하여 수령은 모내기부터 약다만 끝내고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집단주의위력으로 모내기실적을 높일수 있는 좋은 방도의 하나였다.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고 모내는데는 모내기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제 10작업반의 일정계획 또한 현실적이었다. 작업반에서는 먼저 로력을 집중하여 모내기와 관련한 모든 선형작업들을 맡맡히 끝내도록 일정계획을 세움으로써 모를 내기 시작하면 로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방법만 찾아주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마련이다. 책임일꾼은 군안의 농장들의 실태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어느 농장에 서나 이틀치면 생강 얼마든지 높은 세운 일정계획을 수행하여 모내기적기를 능히 보장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일꾼들의 사업에서

그는 군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내기전투에 펼쳐나설 때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일꾼들은 하고자 결심하고 방도를 찾으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분발해나갔다.

군적인 모내기기간이 다시 정해지고 일정계획도 처음보다 25% 더 높게 세워졌다.

이런 구체적인 모내기작업은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선형작업들이 수평적으로 추진되어 일꾼들의 준비를 갖춘 곳에서는 모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모내기에 총집중하였다. 결과 모내기시작부터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경영위원회 기사장을 비롯한

일꾼들의 사업에서

군과 농장들의 기술일꾼들이 포전에서 모판관리공, 물관리공, 시비시약공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도 경험적이다.

모판관리공, 물관리공, 시비시약공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모를 실하게 재배할수 있고 실한 모를 걸러내야 모내기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다. 그러자면 그들모두가 주체농법의 요구를 환히 꿰뚫어야 한다. 기사장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모기르기, 물관리, 비료주기에서 나오는 과학기술적요구들을 잘 알고 적극 받아들여도록 잘 지도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특히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보급사업과 총화정가사업이 은을 내도록 하였다.

기술일꾼들은 모든 농장들의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시작부터 성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심과리를 찾아내고 기기에 령량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이곳 일꾼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농장의 구체적인 일정에 맞게 걸린 고리를 정확히 찾아내 고 거기에 령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둔것이다. 물론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할수 있게 한것이 그 실례이다.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모기르기, 물대기, 씨베끼기 등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초점을 모았는 지난해 많은 작업반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벼모를 뜯어 길렀기때문이라느니, 모내는기때들의 가동률을 높인데 비결이 있다느니 하고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관리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모기르기, 물대기, 씨베끼기 등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초점을 모았는 지난해 많은 작업반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벼모를 뜯어 길렀기때문이라느니, 모내는기때들의 가동률을 높인데 비결이 있다느니 하고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관리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시작부터 성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심과리를 찾아내고 기기에 령량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이곳 일꾼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농장의 구체적인 일정에 맞게 걸린 고리를 정확히 찾아내 고 거기에 령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둔것이다. 물론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할수 있게 한것이 그 실례이다.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모기르기, 물대기, 씨베끼기 등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초점을 모았는 지난해 많은 작업반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벼모를 뜯어 길렀기때문이라느니, 모내는기때들의 가동률을 높인데 비결이 있다느니 하고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관리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시작부터 성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심과리를 찾아내고 기기에 령량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이곳 일꾼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농장의 구체적인 일정에 맞게 걸린 고리를 정확히 찾아내 고 거기에 령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둔것이다. 물론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할수 있게 한것이 그 실례이다.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모기르기, 물대기, 씨베끼기 등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초점을 모았는 지난해 많은 작업반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벼모를 뜯어 길렀기때문이라느니, 모내는기때들의 가동률을 높인데 비결이 있다느니 하고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관리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평원군 율령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시작부터 성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심과리를 찾아내고 기기에 령량을 집중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인 문제이며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입니다.》

이곳 일꾼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농장의 구체적인 일정에 맞게 걸린 고리를 정확히 찾아내 고 거기에 령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둔것이다. 물론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할수 있게 한것이 그 실례이다.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진행될 때였다. 모기르기, 물대기, 씨베끼기 등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초점을 모았는 지난해 많은 작업반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벼모를 뜯어 길렀기때문이라느니, 모내는기때들의 가동률을 높인데 비결이 있다느니 하고 농장원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관리위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는 김홍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실효가 큰 현장기술협의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에 대한 지도에서 농민들이 주인이 되어 모든 영농사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모내기 시작한 어느날 들끓는 포전들을 돌아보던 문덕군 룡중협동농장 일꾼들은 제 2작업반포전에서 결실을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문덕군 룡중협동농장에서

그들은 의견을 나누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이 다 현장에 나가있는 조건에서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한다던 모내기진행정형을 제논으로 보면서 모내기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이었다.

얼마후 모내기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제 4작업반포전에서 20개작업반에서 모내기를 멈추었다. 손으로 모를 번 쪼갠이 눈에 띄었던것이었다. 평전 포기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꾼들의 생각은 깊었다.

현실조건에 맞게 모내기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로의하여 방도를 찾아내야 하였다. 관리위원회 중종결을 찾던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멈추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포전에서 기술협의회를 진행하던때...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놓고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산군 남산로동자구 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백살장수자 남부성로인에게 은성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었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아버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망국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백살장수자가 받아안은 크나큰 은성

노의 설과 민족적멸시속에 살아오던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었다.

그는 지금도 건강한 몸으로 텃밭가꾸기와 토끼, 염소, 닭 기르기를 하고있다. 식생활에서 편식을 모르는 그는 탁월적으로 생활하고있으며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일 잘하는 청년

바퀴차리가 깊숙이 나있었던것이이다. 포전에는 그 실이 다 부러진것이 아닌가 하였다. 김이 문문 나는 거름더미를 보며 농장원들은 지난해 가을날일거리를 하면서도 잠시간소탈구지로 버단을 실어들이는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평양 5월 24일합 조선중앙통신】인연 및 인도주의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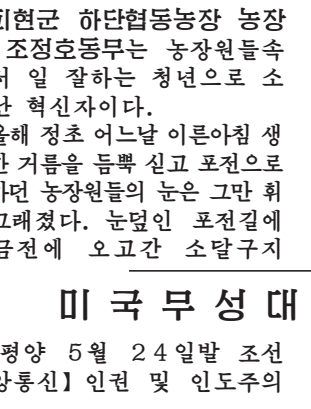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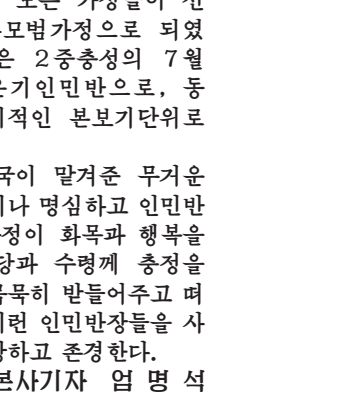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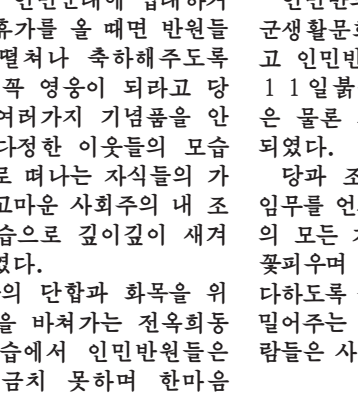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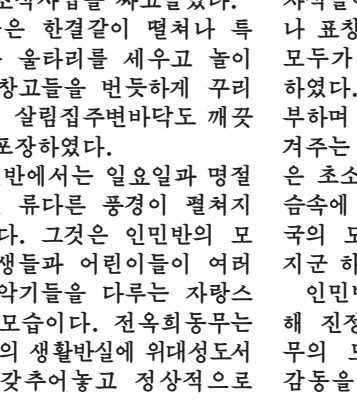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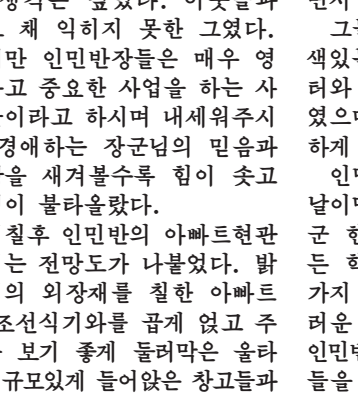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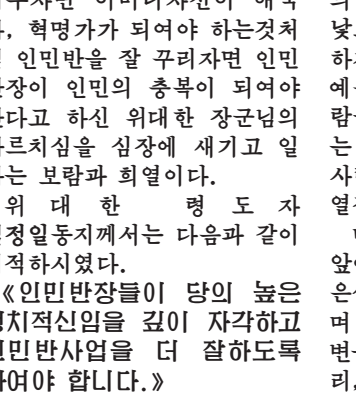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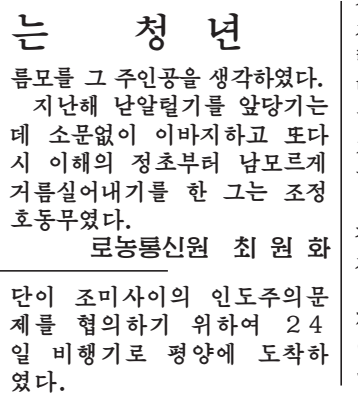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미국무성대표단 도착

문제담당 특사 로버트 킹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무성대표



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청년들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여가는 총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였다.
《오늘 총련은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공고한 대중적조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한길로 믿음직하게 이끌어 나가는

권위있고 힘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 발전되였습시다.》
오늘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자랑이며 주체적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영예를 떨치는 총련 결성 56돌이 되는 날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주체의 한길로 애국의 뜻을 올린 때로부터

50여년세월 해외교포운동의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면서 자부심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자본주의의역망의 어러운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애국애족의 길을 꾸준히 이어가고있는 전체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사를 보낸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은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이 지난날 그려왔던것처럼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어머니수령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령도를 변함없이 이어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본사기자 허영민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민족교육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 성과여부는 총련의 애국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재일조선인운동은 다름아닌 민족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50여년간 총련이 이룩한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민족교육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민족교육은 재일조선인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원인이었다. 또한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추후해온 민족동화책들을 짓부시는 위대한 투쟁이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총련은 민족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어느 하루도 중단없이 벌려왔다. 지금은 일본명을 뒤 흔들어 힘차게 벌여지고있는 민족교육권리사수투쟁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래양의 빛발아래 승리와 영광을 펼쳐온 긍지높은 력사

총련은 절세의 위인들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아래 결성되고 승리의 한길로 걸어온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해외교포단체이다.

일찍이 재일조선인문제의 발생근원과 본질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애국의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한때 재일조선인운동이 자기의 성격에 맞는 방향을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여 운영적 곤란기에 놓였던 시기에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향을 제시하시어 재일동포들에게 재정의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주제 44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협회(총련)가 결성되었다.
총련의 결성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언하고 재일동포들의 운영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건이었다.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명확한 강령과 로선을 가지고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없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담하게 투쟁하는 애국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인 영예와 민족적존엄

을 간직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배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재일조선인운동사의 갈피갈피마다 승고한 동포애의 전설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총련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켜주시는 주체의 한길,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었다.

언제나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운영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막사본적에이로 총련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값있는 삶을 빛내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배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던 그 존엄한 나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력사적전훈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시어 총련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제시하시어주시었다. 오늘 총련이 변화

되는 환경에 맞게 자기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일심단결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고있는것은 총련에 국위엄에 쌓아올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드림없이 관철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총련은 지난 50여년간 조국과 민족애에 실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직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로선,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고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순결한 애국의 대오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총련이 이룩한 업적 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이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충실하게 받드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 고귀한 전통은 재일조선인운동이 주체의 뜻을 올린 때에 뿌리내렸으며 애국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나날에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들끓어오는 신념으로 간직되었다.
총련은 결성된 첫날부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

으로 삼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반에 걸쳐서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총련은 자기의 대중적성격에 맞게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까지 각종 조직들과 제정당조직, 사업체들을 꾸려놓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총련은 유지원으로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민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놓고 애국위업의 미해를 때때로갈 수 많은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왔으며 민족배우자의 사생활도 동화, 귀화책동이 우선인 자본주의의본방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융화되는 동포사회를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자랑스러운 인민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더 꽃피워왔다. 그 과정에 총련은 동포들의 애국애족의 정열과 투쟁을 받들고 있는 조직으로, 각계각층 광범한 동포애를 힘있게 벌어지는 나날에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들끓어오는 신념으로 간직되었다.
총련은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사명으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사회주의조국

애국운동의 생명선을 지켜

의 권리를 지키고 일본당국의 총련적대시정책과 조선민족자별행위에 총기부를 찍기 위한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

하여 은 동포사회에 제 2의 4.24 교육투쟁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올랐다.
일본 각지에서 조선학교를 제의하는것을 반대하는 동포집회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일본당국의 자별행위의 부당성을 까뻐하는 선전활동과 조선학교지문문제를 공판하여 처리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동포들은 《조선학교지문문제에 민족차별!》, 《조선학교차별을 용서 안한다!》, 《우리의 투쟁을 통해 조선학교지문문제를 반드시 실현시키자!》 등의 구호를 제쳐두고 매일과 같이 투쟁의 거리를 누벼나가고있다.

총련인민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는 민족교육사업에서부터 열려져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교육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민족교육대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학생인입사업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애국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굳건히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를 불러오야 할것이다.

굳건해지는 조직적로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년이 되는 뜻깊은 2012년에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것을 결의한 총련은 이를 위해 기층조직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있다.

총련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지 부가 지방자치운동의 봉화기를 올린데 이어 제2차 총련지부일군대회와 100일운동, 90일운동 등을 통하여 지부를 비롯한 기층조직들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총련의 각 지부들은 지역동포사회의 종합적지점, 기층조직지도기반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한편 총련은 새 세대 동포들을 대담하게 믿고 앞장에 내세워줌으로써 그들의 애국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또한 조성과 너성동맹, 청상회의 기층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조직해나가고있다.

총련의 선전교양체계도 보다 튼튼히 꾸려지고있다. 대중강연장과 5호당당선전원체가 재정비되고 최신정보통신수단들을

리용한 선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특히 조국방문을 통한 교양사업은 총련인민들과 동포들이 조국의 번영속에 자기들의 행복과 후대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과 민족적근거감을 더 굳게 간직하도록 하고있다.

총련일군대오의 일심단결과 조직의 활동력도 부단히 강화되고있다.

지난해 5월 뜻깊은 결성기념일을 앞두고 총련이 진행한 제 22차 전체대회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모든 활동을 새 세기의 요구와 동포들의 지향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은 의의깊은 대회였다.

꽃피는 민족문화

민족배우자의 사생활도 동화, 귀화책동이 우선인 자본주의의본방에서도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아름답게 꽃피워왔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애국애족의 력사를 더 잘 알고 적극 살려나가는 동포들의 지향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총련이 지난 50여년간 일관하여 민족성고수 투쟁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결과이다.
총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수십년세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해온 총련의 투쟁로정과 이

본반동들의 악랄한 민족차별책동속에서도 민족주의적민족권을 사수하고 민족문화를 꽃피워온 동포사회의 력사를 반영한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공헌하였다. 그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동포사회에 애국의 불길 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총련의 대중문화사업도 민족성고수를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지금 일본 각지의 동포사회에는 500여개의 문예소조가 있는 데 많은 동포들이 여기서 아름다운 우리의 노래와 춤가락을 배우며 민족성을 품만하게 자라나고있다. 새 세대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광범한 동포



민족교육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포학생들

영국 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광주인민봉기 31돌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회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글에는 《광주는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주인민봉기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글이 지적하였다.

역사가 기록한 인민대항투쟁인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재일조선인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항쟁용사들의 넋은 결코 잊어지지 못했다. 항쟁은 기록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오늘도 부

른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다름아닌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31년전 광주에서 류혈적인 항국을 벌이던 장본인도 바로 미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고 즉속으로 두려움없이 영웅적으로 싸운 광주학생들의 넋을 이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함으로써 국악한 민족 단결의 굳이 리명박 《정권》에 파멸의 준엄한 철수를 안걸것이다.

글에는 《응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대전시 대덕구가 과학기술연구지구로 선정되었다. 남조선당국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7년간 대덕구는 충청도, 경상북도일선에서 기초과학연구와 중이온 가속기를 비롯한 핵심시설을, 수십개의 연구단위들이 집중배치된다.

보수패당은 당국의 부지확장에 그 무슨 《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부지확정설》을 말미암아 앞으로 남조선에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속에 빠져들게 되리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는 기만과 독선

상도지역 의원들은 당국의 부지확정이 다음해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총중도지역의 지지표를 따내기 위한 속셈에 따른 지역차별이라고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각계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보수패당의 과학기술연구지구에 대한 부지확정설이 말미암아 앞으로 남조선에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속에 빠져들게 되리라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당면한 세종시건설

의로파학자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개발비를 돌려 사회적환환을 야기시키고 지역적갈등을 부추겼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시공할 그리고 과학연구지구부지선정까지 정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사업마다 지역갈등으로 번졌다》라고 폭로하면서 《정부가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공약을 바꿈으로써 지역갈등을 확산시킨 책임이 누가 없느냐》라고 일침하게 찌르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피피패당이 얼마나 민심을 우롱하였으면 남조선항쟁에서 《대통령》을 믿는 사람과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 검찰수사를 믿는 사람과 《국익》을 위해 계획을 바꿀수밖에 없었다는니, 리해를 구한다니 뉘나하고 민심을 우롱하였다. 남조선의 주요정책들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층은 집권자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강력히 항의해나갔다. 지어 《한나라당》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배신당했다고 하며 남조선에서 정치대위기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사회정체를 갈등과 혼란속에 빠져들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역적패당이 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는 지어대로 가가마련은 집권하자마자 그것을 뒤집었으며 남조선강원도지역에 첨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명 발표

남측본부 5.18 광주인민봉기 31돌에 즈음하여 1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은 애국과 파초를 반대하는 민중의 불굴의 기상과 의지를 온 세상에 파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날의 투쟁정신을 이어 지금의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다름아닌 미제의 남조선강점에 있다. 31년전 광주에서 류혈적인 항국을 벌이던 장본인도 바로 미제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고 즉속으로 두려움없이 영웅적으로 싸운 광주학생들의 넋을 이어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함으로써 국악한 민족 단결의 굳이 리명박 《정권》에 파멸의 준엄한 철수를 안걸것이다.
글에는 《응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항쟁의 기개와 정의의 리명박의 반민족, 반통일정책을 파각히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중이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반역 《정권》을 기어오 심판할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의 독성물질매몰행위 계속 폭로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이 경상북도 철곡군 왜관지구에 고장폐기물 매몰장소를 찾아내었다. 당시 지대에 일하다가 퇴직한 로동자들이 이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들은 지대에서 일할 때 방사능표시가 있는 화학물질을 본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때 받았던 독한 냄새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지대에 묻힌것이 비단 고엽제뿐이 아닐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군

지대에 화학부대가 있었다는 점도 미군리행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있다 한다.
연이 밝혀지고있는 미군의 행위는 지금 기지주변의 남조선주민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약육강식은 제국주의자들의 고유한 생존방식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멸망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견제하려고 벌인 별 개편을 다 늘어놓고있다. 마치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인간사회에서 불가피한것처럼 떠들어대는데는 그중의 하나이다. 침략과 강탈을 생리로, 본성으로 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만이 이런 황당무계한 너드리를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마치도 침략과 약탈의 넓은 질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인간사회에서 불가피한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본성을 정당화해 보려는 러무니없는 꾀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인 사람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다.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있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 같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자주화된 세계야말로 인간의 리성과 본성에 맞는 세계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동물세계에 고유한것이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절대로 보편화될수 없다.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물질적부의 생산자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개인의 이익과 리해관계만을 위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한다. 거기에서는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

생활상치와 요구, 리해관계에서 대립되는 로동자와 자본가사이에는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작용한다.

아프리카의 서부 기네 만기슭에는 90여만km²의 넓이를 가진 나이제리야반평원국이라 자칭하고있다. 락화생, 벼, 강병, 조, 목화, 목감자 등은 나이제리야의 주요농작물이다. 나이제리야의 최동에 강병이 락화생이 새겨져있는것만 놓고보아도 이 나라에서 락화생이 농작물재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락화생의 주요산지는 이 나라의 북부지방이다. 연간 비생산량은 521만 t이다. 매해 27만 t의 코코아가 생산되고있다. 나이제리야에서는 농업이 국내총생산액의 30%이상을 차지하며 인구의 70%가 이 부문에 종사하고있다. 나이제리야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있다. 지난해에 경제가 7.85% 성장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원유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제리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유생산국이다. 하루평균 240만bbl의 원유가 생산되고있다. 연간 960만 t의 세멘트가 생산되고있다. 나이제리야정부는 사회경제적발전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이제리야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동맹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전력공급, 하부구조 건설, 교육, 보건, 일자리조성 사업을 강화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증진하고 사회적안정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힘을 쏟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이제리야정부는 전력, 교육, 보건 등 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며 해당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적인 전력생산능력을 현대화하고 10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에 많은 국가적지원을 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인노릇을 하던 여대의 부를 차지하고 《천당》 생활을 하고자 하는것은 한층도 못되는 착취계급뿐이다. 반면에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은 가난과 불행속에 어지러이 사는 아수라관 포우와 희망도 없이 근근히 생을 연명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약육강식의 법칙이 인간사회에 불가피한것처럼 떠드는것은 근로대중에 대한 저들의 착취와 약탈을 합리화하고 계급적, 정치적

배를 언제나까지 유지하기 위한 꾀변을 치는 꾀변이다. 그것은 자본내에서는 물론 국제관계를 약육강식의 불평등한 관계로 만든다는데 그 엄중성과 더 큰 위험성이 있다. 모든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있다. 큰 나라라고 하여 특권을 가지거나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수 있으며 작은 나라라고 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대국들의 간섭과 압력을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 누구도 제국주의자들에게 제멋대로 놀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결사항전 군사적방법으로 주권침해행위를 강행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국제관계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준수하여야 할 규범과 원칙이 있는뿐이다. 만약 특정한 나라가 국제규범과 원칙을 어기고 마치도 저들에게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처럼 행동하는것을 허용한다면 공정한 국제정서를 수립할수 없고 국제관계에서는 약육강식이 판무하기마련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독단과 강권을 침략적대외정책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국제관계의 공인된 원칙과 규범들을 만족하게 위반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있다. 그들의 강권과 독단은 저들만이 세계를 차지할수 있는 군사적힘과 특권을 가지고있다는 교만성과 파렴치성에 기초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대외정책은 힘에 기초하고있다. 그들은 필요할 때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력과 간섭행동을 일삼아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공인된

국제규범도 꾀버리고 독단과 전횡을 부린다. 미국정계인물들은 유엔은 《미국 의 효과적인 외교도구》로 되어야 하며 미국의 국내법은 국제법우에 있으므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행동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다는 망발까지 늘어놓고있다. 그들은 저들의 의사가 곧 세계를 다스리는 《법》이고 이 《법》을 어기는 나라는 미국의 군사적타도 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제국주의 령들의 독단과 전횡으로 하여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이 억제당하고 국제무대에서는 비극적사태들이 빚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구실로 부르조아자유화바람을 일구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것은 약육강식의 또 다른 표현행태이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의욕과 불신감, 반항심을 조장, 야기시키며 제 마음 내키는대로 살라고 행동하며 자기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등 약육강식의 생존경쟁과 같은 동물세계의 법칙이 작용하게 하여 결국 그 나라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고있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지배와 약탈의 대상으로 삼는 약육강식의 정치경제전략을 추구하고있다. 령도 강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침략역사가 이를 실증한다. 아메리카원주민 인디언의 삶의 터전을 강탈하고 《국가독립》을 선포할 당시 미국의 령도는 북아메리카대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미국의 령은 침략전쟁으로 자기의 령도를 끊임없이 확장하여 광활한 땅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었다.

유럽 미사일 방위 체계에 관한 입장 표명

— 로씨야방위력 총참모장 니콜라이 마카로프가 20일 일론트에서 미국이 유럽에 전개하려는 미사일방위 체계에 관한 자기 나라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로씨야는 미국의 유럽 미사일방위 체계창설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만일 그러한 방위 체계가 창설되는 경우 로씨야의 미사일공격조기경보 체계는 즉시 반응할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 체계의 요격 미사일사거리의 로씨야영토를 포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는 로씨야는 자기에 미치는 위협을 자체로 극복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부당한 제안을 배격

일론트 오기아와인 가네나정의 회가 최근 후엔마기공군기지를 가네나미군기지에 통합할데 대한 미국의 제안을 배격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그러한 통합제안이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되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규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대변인이 20일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날 이스라엘수상이 1967년에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킬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이런 쓰련의 우주비행사로서 처음으로 이름을 남긴 그는 1961년 4월 12일 우주비행사 《유로프코》를 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비행을 하여 1시간 48분동안 지구를 돌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50년 세월이 흐른 오늘 세계우주과학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류공동의 제부인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의 노력에 힘입어 우주비행은 새로운 우주개발을 제시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과학기술발전에 힘을 쏟고있다.

지난 4월 유럽동맹위원회가 우주공정정책의 우선적인 발전목표를 발표하여 《독자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우주공정을 건설할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또한 우주비행과 관련한 기초시설건설을 중시하고 우주공정과 기타 공업부문의 상호협력과 관련 분야의 성장과 교류를 촉진하며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맹진공식후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를 특히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주권국가들을 《불평등국가》, 《위협세력》 등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과 강권정책에 악랄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작고 힘이 약한 나라들을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강권주의의 첫째가는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의 강권행사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 침해당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독단과 전횡이 묵인 허용된다면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국제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게 되며 종당에는 세계가 무법천지되 될수 있다.

오늘 인류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해일없이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의 나쁜 세계와 질질하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친선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는 정당한 력사적시대에 들어서고있다.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에 사로잡혀 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예속과 고통을 강요하는 지배자의자들, 인민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변질, 타락시키고 침략과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제국주의세력들을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은 력사에 의하여 부정된 반인륜적인 약육강식의 법칙을 변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자들의 꾀변과 반동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에 단호한 철수를 내려야 할것이다.

강 경 숙

우리 인민의 투쟁성과 소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해 애써 국헌신의 전진적인 강령군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데 대하여 로씨야TV방송과 중국인테레트가 18일에 소개하였다.

로씨야의 웨스데 24 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경제발전의 새한 불길을 지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꽃을 지펴주신 후 경제발전의 위해 근 80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었다. 이것은 매달 평균 두개 이상의 단위를 찾으신 것으로 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 공장을 하나 세 워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올해 조선의 공동사설에는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레 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밝혀져있다. 이를 위해 경제개발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환구망도 《김정일 동지께서는 근 80개 단위를 현지지도, 경제개발을 전진시키며》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제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브라질사회의 청년동맹이 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최현

발전소의 연계공사 마감단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2009년 9월 최현발전소건설장소를 찾으시고 군인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2010년에만도 무려 4차례나 발전소건설장소를 찾으시어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의 강력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최현발전소가 만민대계의 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되어가고 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투자상과 선진국지연구회 국제연합이 1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많은 대상을 건설하고있는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투쟁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많은 경제개발을 개진하거나 새로 건설하였으며 경제개발을 새로운 과학기술로대우에 올려세움으로써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적인 과업으로 삼아 경제개발을 이룩할데 대한 결정을 제시하고 이 사업에 당과 국가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시었다.

본사기자

새 생활 창조 의 길에서

단편 모 낱 작 에 흠 량 칠

무런 버려지 장관방에서 모 건다는 말이 있다. 중동평화의 《약》인 이스라엘이 늘어는 꼴이 그렇다.

최근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가 팔레스티나 민족당국 수반 아바스에게 들이댄 어처구니없는 강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는 아바스에게 하마스(팔레스티나이슬람교항쟁운동)와의 판재를 포기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스라엘과의 평화와 하마스와의 화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경고까지 하였다. 이것은 팔레스티나당에 대한 영구강점을 추구하고 이스라엘 령도강탈자들도만이 할수 있는 쓸개짜진 꾀기이다.

지구 세계는 한때 서로 등을 돌려대고있던 파르(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와 하마스가 화해의 손을 잡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궁정적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은 파르와 하마스의 화해를 배아파하며 췌

이 나라의 바이엘쑤우에 세로 일떠서게 될 종합대학의 교사, 기술사, 도시계획설계에 많은 자금이 들러지게 된다고 한다.

나이제리야에서는 뇌막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예방접종사업을 벌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 나라의 수직계 주에서 29살미만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또한 5개년 암치료계획을 세우고 암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나이제리아정부는 사회적안정을 보장하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이제리야는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대륙의 통합과 안정,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이제리야는 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1976년 5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수급의 교관계를 맺었다.

박 송 영

소형지열발전소를 이용한 난방체계

어느 한 나라에서 효율이 높은 소형지열발전소를 이용한 난방체계를 널리 도입하고있다.

이 체계를 설치하려면 땅에 직경이 약 10cm, 깊이가 75~100m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야 한다.

이 구멍에 지열발전소의 판을 넣고 부동액을 순환시켜 지열을 채취한 다음 이 열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물을 가열시킨다. 새로운 난방체계에 리용되는 방열장치는 중진도의 난방체제에서 쓰이는 설비들과 똑같다. 소형지열발전소의 한 난방체계는 지열을 뿜아내어 적은 소비전력으로 그것만이나 되는 열에너지를 얻어낼뿐 아니라 설비비용이 낮은 등 여러 가지 우점을 가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연 재 해

▲ 로씨야의 씨비리 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산불로 5일 현재 3 700ac (에이커)의 산불이 불타버렸다. 이 나라 비상사태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 인디아 우마르 브라데쉬 주의 여러 지역에서 21일 폭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

구 바에서 2010-2011년 수확계절에 120만 t의 사탕무가 생산되었다. 이것은 그전 수확계절에 비해 6% 더 늘어났다고 된다.

이란에서 이란의 야드즈주에 해면철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16일에 조업하였다. 공장의 연간생산능력은 80만 t에 달한다.

한편 이란의 마르카주에 새 연체가 건설되어 조업하였다. 조업식이 19일 이 나라 대를 넘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있었다. 이 연체의 저수능력은 1억 1 000만mm³에 달한다. 새로운 연체가 건설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과 공업용수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루에서 지난해에 빈공률이 2006년의 4.8%로부터 3.1. 3%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정부에서 빈공정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위한 결과이다. 19일 이 나라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혔다.

알제리에서 최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치는 국내기업체들에 우선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자체생산을 높이고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민족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로씨야방위력 총참모장 니콜라이 마카로프가 20일 일론트에서 미국이 유럽에 전개하려는 미사일방위 체계에 관한 자기 나라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

우주의 개발 비용을 위하여

가가표준서로 기록된 세계인물사전이나 조선태백사전의 첫 번째 이름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가가런이다.